

현대 생성통사론 연구의 전망과 방향*

김 선 응

차 례

- I. 서론
- II. 철학적 관점의 변화
 - 1. 플라톤의 문제
 - 2. 다윈의 문제
 - 3. 아래로부터의 접근
- III. 이론적 발전의 방향
 - 1. 병합과 이동
 - 2. 이동통제이론
 - 3. 제3요인의 탐구
 - 4. 통섭
- IV. 결론

I. 서론

통사론 연구의 현재를 한마디로 최소주의의 추구(pursuit of minimalism)로 규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언어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최소주의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다는 지극히 명료한 경제성의 원리에서 출발하는데, 언어연구 특히 생성문법의 통사론 연구에 있어서 경제성이란 문법의 기술이 귀무적인 가설 혹은 영가설(null hypothesis)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KRF-2008-327-A00601). 또한 이 논문은 2010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원고의 내용에 영향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Norbert Hornstein 교수와 초고에 대해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문귀선, 홍성심, 박명관 교수께 감사드린다.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가설이란 문법이론의 기술이 핵심적인 것만을 남기고 점점 최소화하여 결국 영(零) 혹은 무(無)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간의 언어 혹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UG)이 완벽한 체계(perfect system)라는 언어완벽성의 가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을 강력최소주의(Strong Minimalist Thesis, SMT)라고 부른다 (Chomsky 2007, 2008).

80년대 이후 생성문법의 통사론 연구는 그 이전의 연구들과 관점과 이론적 모델의 변화는 조금씩 있어왔으나, UG의 완벽성의 규명 혹은 SMT의 규명이라는 절대적인 과제는 변함없이 추구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생성문법 통사론 연구를 80년대의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GB)과 그 이후 9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이론적 발전을 최소주의이론(Minimalist Program, MP)으로 대별하고 양자의 철학적 관점의 변화와 UG의 규명을 위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대조적으로 이해하여 향후 현대 통사론의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21세기 언어학의 배경이 되는 철학적 관점의 변화와 발전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3절에서는 최근 통사론 연구의 이론적 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를 실제적인 경험적 자료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는 “이동으로서의 통제이론(이동통제이론 Movement Theory of Control, MTC)”의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사론 연구가 인지과학 연구의 핵심영역으로서 외연적 확장을 통하여 생물학, 신경학, 심리학 등의 인접학문과 소통함으로써 궁극적인 통섭(consilience) 혹은 학제간 융합의 단계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철학적 관점의 변화

1. 플라톤의 문제

현대 언어학 (혹은 생성문법)의 태두인 미국 MIT의 Noam Chomsky 교수

는 1955년 자신의 펜실베니아대학 박사논문을 통하여 인간의 언어능력은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천적이고 유전적으로 내재된 상태로 주어진다고 주장하고, 인간의 언어능력을 몇 가지의 모듈이 복합적으로 조합된 문법 모델을 제시하고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것의 실체를 구체적인 언어 현상을 통하여 논증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의 언어 연구의 일차적 과제는 소위 플라톤의 문제(Plato's problem)에 대한 궁극적인 규명을 하는 것으로서, 플라톤의 문제란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 철학적 문제이다.

(1) 플라톤의 문제

인간은 어떻게 아주 적은 경험만으로도 엄청난 인지적 지식을 가지게 되는가?

주지하다시피, 생성문법의 출발과 주요한 관심사는 인간의 언어습득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는데, 어린 아이의 언어습득과정에 대한 의문이 플라톤의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결국 플라톤의 문제란 인간의 언어능력(Faculty of Language, FL) 혹은 보편문법 혹은 내재언어(I-language)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언어습득의 논리적 문제(logical problem of language acquisition)"이다.¹⁾ 어린 아이의 언어습득은 참으로 경이로운 과정이다. 어린 아이는 성장의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일차언어자료(Primary Linguistic Data, PLD)를 통하여 성인의 언어체계가 만들어 내는데, 이 언어체계의 풍부함은, 일차언어자료의 빈약함과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완성된 언어체계는 그 양에 있어서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완벽한 체계라는 것을 가정할 때, 어린 아이의 언어습득은 경이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음 절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인간 언어습득의 시간적 단기성(shortness) 또한 경이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 아이가 20±2개월이면 누구나 해당 모국어를

1) 엄밀히 구분하자면, FL과 UG은 다른 개념으로서, FL의 최초단계를 UG로 이해할 수 있다. UG는 인간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생득적 능력이다. 내재적 언어는 FL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이해하고 발화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의 다른 인지적 능력의 발달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²⁾ 입력이 된 자료의 양과 출력으로 얻어진 지식의 양의 차이를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생성문법 (통사론) 이론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문제의 규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플라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이론적 발전이 MP 이전의 GB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GB이론은 UG의 구성을 다양한 원리들이 조합적으로 얽혀있는 복합체로 가정한다. GB 이후 언어학자들이 동의하는 공통적인 전제는 인간의 언어능력, 즉, UG는 몇 개의 문법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의 모듈로 보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이다 (Chomsky 1981).

(2) UG의 문법모듈

- a. 격이론(Case Theory)
- b. 결속이론(Binding Theory)
- c. 통제이론(Control Theory)
- d. 지배이론(Government Theory)
- e. 이동이론(Movement Theory)
- f. 의미역이론(Theta Theory)
- g. 핵계층이론(X-bar Theory)

이러한 최소한 일곱 가지의 다양한 문법모듈들의 구체적인 정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80년대와 90년대 맹렬히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개별 언어의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각 모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왔다. 사실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LGB)에 소개되어 있는 핵심적 자료들에 대한 통찰력과 이것의 기술 및 접근방향의 제시는 지금도 모든 언어학자들이 기념비적 성과로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2) 이것은 뒤에 논의하겠지만, 플라톤의 문제와 대조적으로 다윈의 문제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B의 노력은 그 이후에 발전한 MP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주의 정신의 궁극적인 방법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Chomsky 1995). GB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자면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론 내적인 문제로, 모듈간의 중복성, 즉, 문법의 잉여성(redundancy)의 문제를 갖는다. 일곱 가지 이상의 모듈이 동시 다발적으로 작용하면서 비경제적인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예가 격이론과 의미역이론 간의 문제일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3) a. John kicked Mary.
 b. *John kicked.
 c. *Kicked Mary.

(3a)는 타동사 *kick*이 가지고 있는 행위자와 대상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정상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3b)는 주지하다시피 비문인데, 이것이 비문인 것을 GB의 모듈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3b)는 목적어를 결하고 있으므로 타동사 *kick*의 대상 의미역(theta-role)이 주어질 논항(argument)이 없다. 이 문장은 일차적으로 의미역이 주어지지 못했으므로 의미역기준(Theta-Criterion)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그 비문법성은 의미역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³⁾ 그러나 이 문장은 또한 동사 *kick*이 가지고 있는 목적격 부여 능력도 실현되지 못했으므로 소위 역격여과조건(Inverse Case Filter)의 위반이기도 하다. 즉, 격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가 이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격이론으로도 그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 (3c)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kicked*의 시제소가 가지고 있는 주격 부여 능력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역격여과조건의 위반으로 격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영어의 모든 주어자리는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EPP가 핵계층이론과

3) 의미역기준은 간략히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Chomsky 1981): 모든 논항은 하나의 의미역을 가져야 하고, 모든 의미역은 하나의 논항에 각각 부여되어야 한다.

관련한 문법의 모듈 혹은 원리의 하나라면 결국 (3c)에 대해 격이론과 핵계층 이론의 두 가지 모듈이 모두 그 비문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비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이론들이 서로의 원리를 동원할 수 있다면 이는 경제성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즉, 중복된 투자로 인한 잉여적 체계가 되어 버린다면 영가설 혹은 SMT 가설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둘째, 문법체계 자체가 갖는 복잡성의 문제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UG의 구성이 위에서 언급한 최소한 일곱 가지 이상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린 아이의 언어습득과정이 너무도 단시간 내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른 인지능력의 발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개월 미만의 어린아이가 일곱 가지 이상의 모듈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문장을 생성해 낼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법학자들이 구축해 놓은 각 문법 모듈의 내용에 비추어 어린아이의 빈약한 일차언어자료와 미성숙한 인지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체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신경언어학적 연구로도 뒷받침된다. Poeppel and Embick(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조합성의 불일치(혹은 과립顆粒성의 불일치, Mismatch of Granularity)라고 불리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언어학에서 가정하는 핵심적 운용(operation)들은 뇌과학에서 알려진 뇌생리학적 핵심 운용들과 괴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언어학자들이 위의 이론들을 위해 가정하는 일련의 운용들, 예를 들면, 성분통어(c-command) 혹은 일치(Agree) 등과 같은 문법의 핵심적 개념들과 상관적 관계를 갖는 뇌생리학적 단위들을 찾을 수 없다면, 인간의 뇌 혹은 마음을 연구한다는 언어학자들의 거창한 명분들은 훼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하여 언어학의 연구와 뇌생리학적 연구가 서로 다른 길을 가야한다고 결론이 나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신경언어학에 종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괴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⁴⁾

4) Poeppel and Embick(2005)는 예를 들어 언어학과 뇌과학을 연결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추상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회로(circuit)"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회로란 기본적으로 단순한 운용들을 연산처리하는 뇌구조의 일부를 지칭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단순한 운용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그들의 연구 목표가 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GB의 언어학적 성과가 기념비적인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인간언어의 완벽성을 설명하는데 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실 MP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UG를 조합적인 체계라고 보기에는 습득의 단기간성과 인지능력과 조합성의 불일치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결국 생성문법의 연구는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2. 다윈의 문제(Darwin's Problem)

최근 MP를 지지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지금까지 생성문법 연구가 해결하려고 하는 플라톤의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전자와 대조적으로 진화의 문제 혹은 다윈의 문제(Darwin's problem)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UG를 이해하고 규명하는데 있어서 플라톤의 문제를 화두로 삼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 언어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대략 5만년 전에서 10만년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기나긴 진화의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너무도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언어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어느 시기엔가 발생했던 돌연변이(mutation)에 의한 유전자 변형 때문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 유전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도 이루어지고 있다.⁵⁾ 그러나, 인간의 언어능력과 같은 완벽한 인지체계가 어떻게 그렇게도 빠른 시기에 만들어 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돌연변이라는 것은 결국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Hauser, Chomsky, and Fitch(2002)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FL의 특징 중 무엇이

5)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의 이름을 FOXP2라고 부르고 있다. 독일 막스프랑크 동물진화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침팬지들과 언어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이 유전자의 차이가 정상적인 언어능력을 가진 인간과 침팬지를 구별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FOXP2란 모든 영장류 동물들이 가진 아미노산 성분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715개의 원자 중 단 두 개의 분자가 동물과 다름으로써 인간은 언어능력을 갖는다고 주장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위대한 여정, 한국어 1부, 말의 탄생-산과 바다를 넘어”, KBS 2004특별기획에서 인용).

인간의 다른 인지능력과 같으며, 또한 무엇이 특징적으로 FL에만 유일한 것인가? 결국 언어학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문제는 FL의 변별성과 이것이 나타나게 된 단기간성의 괴리를 설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의 규명을 위한 노력이 MP 이론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3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3. 아래로부터의 접근(Approaching from Below)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MP 지지자들은 다윈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문에 이르게 된다. 즉, 인간의 언어능력은 과연 조합적으로(modular)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윈의 문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위의 일곱 가지 이상의 모듈을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학자들은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언어능력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거나, 인간의 보편문법은 아마도 덜 조합적일 것이라는 가정하는 것이다. Chomsky의 최근 이론은 후자를 지지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최근 원고인 2007년 “Approaching from below”는 바로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과거의 생성문법연구가 UG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위로부터의 접근(approaching from above)이었다면 MP는 이것을 아래로부터 접근(approaching from below)한다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접근이란 UG가 대단히 풍부하고 다양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는 플라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언어의 풍부성을 문법의 조합적 구성으로 이해하고 이것에 접근을 한다면 이는 위로부터의 접근인 반면, UG의 구성을 대단히 단순한 것으로 보고 접근한다면 이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이 될 것이다. 위로부터의 접근은 위에 제시된 각 모듈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규명을 시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지만, 아래로부터의 접근은 무엇이 가장 궁극적인 최소인가에 대한 규명이 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위로부터의 접근이 가정하는 문법의 조합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인간이 진화의 과정에서 복잡성을 선택한다

고 가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인 조합적 UG를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언어능력이 나타나게 된 시기가 너무나도 짧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단 시간 내에 그렇게 복잡한 체계를 완성해 낸다는 것은 또 하나의 논리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플라톤의 문제가 언어습득의 논리적 문제라면, 다윈의 문제는 언어진화의 논리적 문제(logical problem of language evolution)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관점을 도식적으로 이해해 보자. 우선, 잘 알려진대로 GB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법 발견 모델을 가정하고 있다.

(4) PLD (of L) → UG → Grammar (of L)

즉, 어린 아이는 엄마와 같은 주변적 언어환경으로부터 일차적인 언어자료에 노출된다. 이러한 일차적 언어자료를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UG에 넣어 가공하면서 성인의 문법을 완성해 낸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학자들의 과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즉, UG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면 성인의 문법이 생성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GB 연구의 궁극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MP의 문법발견 모델은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Boeckx et al. 2009):

(5) Pre-linguistic principles and operations → ?? → UG laws⁶⁾

(5)의 질문은 어떤 “초언어적 원리와 운용”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UG를 만들어 내는가로 이해할 수 있다. (5)는 (4)가 제기하는 질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모델로 이해할 수 있는데, (4)의 문제에 진화의 문제를 추가한 것으로 이

6) 여기서 pre-linguistic은 extra-linguistic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문귀선, 개인면담 2009). “초언어적인” 우리 말 번역에서 보듯이 이 개념은 언어외적 원리 즉 자연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 조직의 운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연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UG 및 FL은 경계성 혹은 뒤에 언급할 제3요인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인지능력을 구성하는 초언어적 원리에 무엇이 추가되어 언어능력의 실체가 나오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다윈의 문제를 규명하는데 적절한 모델로 생각할 수 있다. 즉, (5)는 아주 작은 어떤 변화 혹은 차이가 인간의 언어능력을 만들어 내게 되었는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주 작은 어떤 변화라고 가정하는 이유는 이 변화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신경언어학적 연구도 언어진화의 논리적 문제의 설명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신경언어학자들은 인간언어능력의 뇌신경적 실체를 밝히는데 매진하는데, 현대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되면서 이 연구가 탄력을 받고 있다. EEG 실험을 통한 ERP연구, MRI 혹은 fMRI를 이용한 연구 등이 인지과학의 캠프에 모여 융합적인 학제간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관심은 특정한 언어현상이 언어고유의 뇌반응을 보이는가를 살피고 UG의 실체를 가지적으로 밝히는 연구에 있다.⁷⁾ ERP 연구는 피실험자의 뇌파를 측정하여 주어진 언어 자극에 대한 반응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것이 언어학적 반응인지, 언어학적 반응이라면 그것이 통사적인 것인지 의미적인 것인지 등을 밝혀내려고 한다.⁸⁾ MRI 혹은 fMRI를 통한 연구는 ERP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ERP연구는 두뇌의 반응을 두피에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두뇌의 전반적인 반응의 변화를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두뇌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이러한 반응이 시작되는가에 대한 관찰은 할 수가 없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화산이 지표에서 폭발한다고 해서 용암의 활성화가 그 지점 바로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즉, 지구 내부의 어떤 지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해당 지표에 화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뿐이지, 지구 내부의 어떤 지점에서부터 용암의 활성화가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MRI를 통한 실험인데, 특히 피험자로 하여금 특정

7) 신경생리학적 실험 용어들인 EEG(electroencephalography), ERP(event-related potential),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8) 전자의 경우는 P600 효과를 보인다고 하고, 후자의 경우는 N400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과제를 수행케 하고 이에 대한 뇌반응을 3차원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fMRI라고 한다. ERP와 fMRI를 통한 연구는 언어능력의 뇌과학적 규명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수많은 인지과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5)의 모델과 관련한 문제로 돌아와서, 언어 외의 인지적 원리들에 무엇이 추가되면 UG의 원리들을 얻을 수 있을까? 다음 절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서 Hornstein(2009), Boeckx et al.(2009) 등의 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통사이론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이들이 어떤 논의를 통하여 다윈의 문제에 직접적인 해결을 시도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향후 통사론 연구의 이론적 발전을 전망해 보도록 하자.

III. 이론적 발전의 전망

앞으로의 통사론 연구는 결국 다윈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시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윈의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UG를 구성하고 있는 각 모듈을 관통하는 궁극의 원리들을 찾아냄으로써 UG가 조합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이미 70년대 Chomsky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는 1977년 "On Wh Movement"에서 의문사이동, 주제화이동, 초점이동, *tough*이동, 비교구문형성규칙, 관계화 등으로 분리되어 설정되어 있던 규칙들이 모두 섬제약(island condition)을 준수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하위인접조건(Subjacency Condition)을 통해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초기의 예가 될 수 있다.⁹⁾ 이와 같이 앞으로의 통사론 연구는 다양하게 전

9) 각각의 구문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 (i) a. Which beer_i do you like t_i? (의문사이동)
- b. Belgian beer_i I like t_i. (주제화이동)
- c. 벨기에산 맥주를 나는 t_i 좋아해. (초점이동; 한국어의 경우)
- d. Belgian beer_i is easy to drink t_i. (*tough*이동)
- e. Mary is taller than Op_i John is ~~t_i~~ tall. (비교문형성)
- f. This is the man who_i Mary met t_i yesterday. (관계화)

개되어 있는 모듈의 내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도를 통하여 UG는 다양한 모듈로 구성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데 노력이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그 최소한의 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중요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 절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논의해 보자.

1. 병합과 이동(Merge and Move)

Chomsky(2005, 2007, 2008)는 일련의 최근 논문들을 통하여 UG의 필수적 운용으로 병합(Merge)을 강조하고 있다. 병합이란 하나의 인지적 운용으로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요소가 존재할 때 이 둘을 결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지극히 단순하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언어에만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6) $\alpha, \beta \rightarrow \{\alpha, \beta\}$

α 와 β 가 존재하고 이 둘을 하나로 묶어 $\{\alpha, \beta\}$ 로 만드는 과정은 가장 원천적이고 기본적인 운용이 될 것이다. Chomsky는 언어 이전의 이 단순한 과정이 언어라는 인지과정에도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¹⁰⁾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은 두 개체가 결합된 형태의 정체는 무엇인가인데, 이는 α 이거나 β 가 될 것이다. 즉, 결합의 결과물은 두 요소 중의 하나로 결정된다는 것인데, 결합의 결과물이 두 요소가 아닌 다른 γ 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즉, $\{\alpha, \beta\}$ 는 $[\alpha \alpha, \beta]$ 혹은 $[\beta \alpha, \beta]$ 가 될 것인데 이것을 명명(labeling)이라고 한다.¹¹⁾ 그런데 UG에 명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위 예문들에서 보듯이 모든 구문은 운용자(operator) 이동인 의문사이동(*wh*-movement) 혹은 공운용사이동(null operator movement)을 통한 분석이 가능하다.

10) Chomsky(2005)는 병합은 외곽자질(edge feature, EF)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각 국면(phase)의 핵(C 혹은 v^*)에 있는 외곽자질은 절 내의 요소들을 내부 병합에 의해 이동시키게 되는데 예를 들어 C의 외곽자질은 절 내부의 요소를 C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는 비논항이동(A'-movement)을 유발한다.

11) Chomsky(2005)는 사실상 세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i) α 와 β 의 교집합

따라 의견이 다르다.

인간언어의 변별적 특징의 하나는 이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동이란 어떤 요소가 처음에 있었던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위치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완벽한 체계라는 언어구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애가 되는 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이동해 와야 하는 것은 연산상의 추가적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병합이라는 기본적인 운용만 가지고 이동을 도출해 낼 수는 없을까? MP의 초기에 인간언어의 이동(혹은 전이, displacement)은 없애고 싶지만 없앨 수 없었던 필요약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최근 Chomsky(2005, 2007)는 이동이란 인간언어의 비완벽성(imperfection)이 아니라 외견상의 비완벽성(혹은 가성 비완벽성, apparent imperfection)에 불과하며 SMT 속에서 이러한 외견상의 비완벽성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동은 병합의 일종으로 병합이란 어짜피 인지능력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동도 결국의 병합과 마찬가지로 인간언어의 완벽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7) \text{이동} = \text{일치} + \text{복사} + (\text{재})\text{병합}$$

$$(\text{Move} = \text{Agree} + \text{Copy} + (\text{Re})\text{Merge})$$

이동은 일치, 복사, (재)병합의 하위 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치와 복사의 문제를 잠시 접어두면, 이동은 결국 재병합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동이라는 운용이 문법에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SMT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연구의 예를 들면 Nobert Hornstein 교수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문법이 조합적이라는 가정에 크게 반발하면서 문법은 다양한 모듈들의 조합이 아니라, 극소수의 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UG에 접근할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문법의 다른 모듈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극소수의

(intersection), ii) α 와 β 의 합집합(union), iii) α 혹은 β 둘 중 하나의 투사(projection). 본고에서는 Chomsky(2005)의 제안에 따라 iii)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운용이란 아래와 같다. 그는 (7)에서 일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반대하고 UG의 기본적인 운용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8) UG의 기본 운용(Basic Operations of UG, Hornstein 2009)

복사(Copy), 연결(Concatenate), 명명(Label)

복사란 주어진 요소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과정이고, 연결은 주어진 두 개의 요소를 결합하는 과정이며, 명명이란 결합된 요소의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이다. 그는 세가지 기본운용을 적절히 조합하면 아래와 같이 병합과 이동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9) 병합 = 연결 + 명명

이동 = 복사 + 연결

그는 UG의 가장 특징적인 운용을 이동이라고 보고, 이동의 핵심에 연결이 있다고 본다. 이동이란 그의 이론 내에서는 복사+연결의 과정으로서 이동이 별개의 운용으로 문법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그의 주장은 연결 (혹은 넓은 의미에서 병합)에 더하여 궁극적인 최소 개념으로서 명명이 존재하며 UG에는 이것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인간언어의 진화론적 문제 즉, 다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²⁾

또한 그는 이러한 기본 운용들만으로 GB의 핵심적인 개념이었던 성분통어(c-command)의 개념도 도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성분통어는 문법의 다양한 모듈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지배의 기본 성분이며, 따라서 격이론, 결속이론, 통제이론, 이동이론 할 것 없이 모두 성분통어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활용되지만, 이는 최소의 개념이 아니며 결합 혹은 병합의 운용의 부산물로서 UG의 목록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일치(Agree)도 문법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이것은 문법에서 요구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편다. 그에

12) 앞서 (5)에서 ??은 구체적으로 명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르면, 일치는 MP에서 장거리 점검과정(long-distance checking)으로 이해 되는데, MP의 연구에서 이동의 조건으로 일치를 가정하는 것은 중복성(redundancy)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장거리 점검을 위해 일치와 이동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서, 이동 하나만 가지고도 장거리 일치와 관련한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니 일치를 문법의 기본운동에서 제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동이론 하나만으로 결속이론도 통제이론도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대표적인 최근 업적들이 통제이론을 이동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그의 이론적 기여를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확인해 보자.

2. 이동통제이론(Movement Theory of Control, MTC)

이동통제이론이란 GB에서 통제이론으로 설명하던 PRO의 인가와 이것의 해석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들을 이동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간단한 예를 보자.

- (10) a. John seemed to like apples.
b. John tried to like apples.

이 두 문장은 GB의 분석과 그 이후 지금까지의 표준적 분석에 따르면 각각 아래와 같이 분석(설명)된다.

- (11) a. John_i seemed [t_i to like apples].
b. John_i tried [PRO_i to like apples].

의미적으로 보나 격이론 등의 다른 문법 모듈의 관점에서 보나 (11a)는 주절주어 *John*이 종속절의 주어 자리에서 인상이동(raising)에 의해 올라와 있는 경우이고, (11b)는 종속절의 주어는 제 자리에 있으면서 주절주어에 의해 의미적으로 통제(control)되는 경우로서 각각 흔적(trace)와 PRO를 포함하는 것

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Hornstein의 관찰에 의하면 명사구흔적(NP-t 혹은 논항흔적 A-trace, A-t)과 의무적통제(Obligatory Control)의 문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양자의 분포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분포가 일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행동도 무척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유일한 한 가지 차이점이려면 명사구흔적의 선행사는 의미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PRO의 선행사는 의미역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의 하나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양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동과 통제를 분리하여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동이 의미역 위치로도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후자는 Chomsky(1981) 이후 표준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명사구 이동은 비의미역 위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제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 부담만을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Hornstein은 위 (11)을 아래 (12)와 같이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12) a. John seemed [_<John> to like apples].
 b. John tried [_<John> to like apples].

(12a)와 (12b)의 경우 모두 John은 종속절에서 출발하여 주절의 주어자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을 복사로 본다면 < >로 표시된 것처럼 이동에 의한 복사 중, 두 경우 모두 상위복사물을 발음하게 되면 원하는 문장을 도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12a)의 주절주어 *John*은 의미역을 하나 점검하게 될 것이고, (12b)의 *John*은 의미역을 두 개 점검하게 될 것인데, 의미역을 자질(feature)로 보고 이를 점검의 대상으로 넣는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설명이다. 이것이 이동통제이론의 핵심적 주장이다.

MTC를 받아들이면, UG의 모듈에서 적어도 통제이론 하나를 없앨 수 있으니 이것은 UG의 최소화에 기여함으로써 다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공헌이 될 것이고, 문법의 다른 운용 중에서 이동 (혹은 더 작게는 병합)만을 남김으로서 UG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SMT에 충실한 문법이론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MP의 완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MTC는 이론적인 강점 외에서 많은 문법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장점이 있는데, 최근 한국어자료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인 역방향의 무통제(Backward Obligatory Control, BOC)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다음의 영어 문장을 보자.

- (13) a. John persuaded Mary to leave.
- b. John persuaded Mary [<Mary> to leave].
- c. John persuaded <Mary> [Mary to leave].

(13a)의 문장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사 *persuade*의 의미적 특성상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종속절은 *to leave*의 주어 필요로 하니 이 문장은 (13b) 혹은 (13c)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persuade*는 아래와 같은 증거 등에 의해 (13b)의 분석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14) a. John persuaded *the cat* to be out of the bag.
- b. *John persuaded *there* to be a bug in the bathtub.

(14a)는 “비밀이 누설되었다. (The cat is out of the bag.)”는 숙어적 의미를 결하고 있는 문장이고, (14b)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이것은 (14a)의 *the cat*은 *persuade*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고 봄으로써 숙어로 해석될 수 있는 환경이 깨져버렸고 (*the cat*이 술어인 *be out of the bag*의 주어로 사용되었을 때에만 숙어적 의미가 가능하다.), (14b)의 경우에는 허사 *there*가 설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¹³⁾ 이러한 측면에서 (14)의 통사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으므로 위 (13b)의 분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15) a. John persuaded the cat [___ to be out of the bag].

13) (14a)에서 고양이는 설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14a)는 화용적 오류로 인해 숙어적 의미를 잃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문귀선, 개인면담 2009). 그러나 본고에서는 (14a)는 *the cat*의 구조적 위치로 인해 숙어적 의미를 결하고 있다는 표준적인 견해를 따른다.

b. *John persuaded there [___ to be a bug in the bathtub].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서 우리는 (13b)의 분석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표준적인 통제이론을 통하여 기술하면 (16)과 같이 된다.

(16) John persuaded Mary_i [PRO_i to leave].

목적어 *Mary*는 종속절의 주어 PRO를 의무적으로 목적어통제(Obligatory Object Control)하는 구문이다. 특히 이 경우 통제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혹은 상위에서 하위)으로 이루어지므로 이것을 순방향통제(Forward Control)이라고 부른다.

역방향통제는 Polinsky and Potsdam(2002) 등에 따르면 영어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Caucasus 지방의 언어인 Tsez에서 최초로 발견된 현상으로서, 그 이후 Malagasy 등의 언어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일본어 등에서도 이것이 존재한다고 주장된 바는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Fujii 2006). 최근에 발견된 가장 확실한 역방향통제를 허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이다 (Polinsky et al. 2007). 다음의 예를 보자.

- (17) a. 존이 메리가 떠나도록 설득했다.
b. 존이 메리를 떠나도록 설득했다.

위 두 문장은 다 같지만 종속절의 주어(혹은 주절의 목적어)가 취하는 격이 (17a)는 주격, (17b)는 목적격으로 다르다. Polinsky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예외격표시구문(Exceptional Case Marking, ECM) 구문과 같이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목적어 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각각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18) a. 존이 ___ [메리가 떠나도록] 설득했다.
b. 존이 메리를 [___ 떠나도록] 설득했다.

위의 ___ 자리는 표준적인 통제이론에 따르면 PRO로 대치가 가능한데 선행사와 PRO의 통제 방향으로 보면 (18b)는 순방향인 반면 (18a)는 역방향이 된다. 즉, 전자의 경우 PRO가 선행사 (혹은 후행사)를 통제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을 역방향통제라고 한다. Boeckx et al.(2009)과 Polinsky et al.(2007)등에 따르면 위의 구문은 통제현상을 이동으로 다루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제현상은 더 이상 UG의 모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⁴⁾ 역방향통제 현상은 표준적인 통제이론이나 그 어떤 통제이론도 설명할 수 없고 오직 MTC만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MTC의 주장에 반대하는 또 다른 비판적인 주장들이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Landau(2004)은 통제이론은 이동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일치에 기초한 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다. 그의 이론은 PRO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는 MTC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문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9) John preferred [to meet at six].

이 문장은 소위 부분통제(partial control)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분통제란 종속절의 동사가 복수주어를 요구하는 단어가 사용된 환경에서 주절의 통제자가 단수로 나온 경우를 지칭한다. 즉, 만나는 행위는 둘 이상의 개체를 요구하지만, 위의 문장에서 주절에 나온 개체는 *John* 하나 뿐이다. 이것을 PRO를 사용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John_i preferred [PRO₁₊ to meet at six].

(20)에서 PRO는 주절의 통제자 *John* 이외의 누군가 혹은 복수의 누군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복사로서의 이동을 가정하는 MTC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Landau의 지적이다. MTC를 지지하는 연구자

14)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지만, MTC에서는 논항위치로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18b)에서 메리틀이 주절주어 위치에서 종속절의 목적어 위치로 이동(복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들의 입장에서 이 현상은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현상으로서, Bower(2007)의 경우는 부분통제란 문법현상이 아니며 오직 *meet*과 같은 특별한 동사에게만 문제가 되므로 문법적으로 논의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하고 있으며 Boeckx et al.(2009)은 Rodrigues(2004)의 연구를 빌어 [pro+*John*]이라는 복잡한 개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 두가지 해결방안 모두 부분통제의 문제점에 대한 궁극적 답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이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UG의 조합성의 문제점에 접근하는 중요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3요인의 탐구(Exploring the Third Factor)

역방향통제현상을 MTC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UG의 모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SMT에 더욱 접근하는 바람직한 연구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MTC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앞으로의 통사론 연구는 결국 이와 같이 SMT의 규명에 공헌하는 연구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실 Chomsky(2005)에 따르면 소위 인간언어의 디자인 속에는 상호작용하는 세 가지 요인 즉, 유전적으로 주어진 선물(biological endowment), 경험(experience), 그리고 언어 외적으로 존재하는 원리(principle) 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한다.¹⁵⁾ 그는 이 중에서 제3의 요인 즉, 경제성 원리의 규명에 공헌하는 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이 인간언어의 고차원적 연산효율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의 논문에 언급된 바람직한 연구의 결과물들은 앞으로 통사론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제3요인에는 두 가지의 원리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료처리에 관한 것들이고, 둘째는 설계 혹은 연산-발달에 관련한 제약에 관한 것들로 정리하고 있다.¹⁶⁾

15) 여기서 원리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연산의 효율성, 즉 경제성의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 촘스키는 연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설명적 타당성을 넘어서는 유기체로서의 언어의 체계가 연산의 효율성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SMT를 증명하는 길로 보고 있다 (문귀선, 개인면담 2009)

첫 번째 원리와 관련된 연구로 인간언어의 매개변인의 정체를 밝히는 연구들이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데, Baker(2001)가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료처리와 관련한 원리들을 규명하는 Yang(2002)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Miyagawa(2004)의 일치우세언어와 초점우세언어의 구별을 위한 매개변인의 연구도 성과있는 연구로 언급되고 있다.¹⁷⁾ 이러한 측면에서 매개변인의 값 설정을 통한 언어유형의 구분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는 다른 노선으로 매개변인의 무용론에 관한 논의(Terje 2008)도 앞으로의 통사론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¹⁸⁾

두 번째 원리들에 관한 연구성과는 더욱 풍부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더욱 밝은데, 언어현상이 계면현상임을 밝히는 연구들, 연산의 효율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연구들 등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Collins(1997)의 국부적 경제성에 관한 연구, Epstein(1999)의 도출적 통사이론, Framton and Gutmann(1999)의 순환적 연산과 연산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며 앞으로의 연구전망도 밝다고 하겠다.

Chomsky(2005, 2007, 2008)은 병합을 내부적 병합과 외부적 병합으로 가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동은 결국 내부적 병합이라는 정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Chomsky(2005)의 상당 부분은 병합에 기초한 문법이론의 구축에 할애되어 있다. 따라서, 병합의 실체를 밝히는 연구들도 연산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들로 평가되는데, Richards(2001)의 "끼워넣기(Tucking-in)"에 관한 연구는 독창적이면서도 후속연구를 촉발하는 중요한 연구이다. 특히, 병합과 이동의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원리인 확장조건

16) 이 절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17) Miyagawa(2004)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 및 기타 유럽어의 경우에 일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일본어, 터키어, 특히 Kinande어 등에서는 초점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일치와 초점은 언어마다 매개변인적으로 선택하는 구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영어는 일치우세언어(agreement prominent language)의 예에 해당하고, 일본어와 한국어는 초점우세언어(focus prominent language)의 예에 해당한다.

18) Terje(2008)는 매개변인의 설정 자체도 MP적 설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tension Condition)의 수정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연구이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Boeckx et al.(2009)의 연구도 병합을 더 기본적인 개념의 조합으로 이해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통사론 연구는 병합의 역할과 개념적 이해에 관한 연구를 중요한 일부로 포함할 것이다. 이동의 실체를 밝히는 연구들도 병합에 관한 연구로서 중요한 연구성과들을 도출하고 있다. 이동을 복사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복사의 과정과 복사의 음성적 해석을 밝히는 연구들도 매우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많은 경험적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다. Chomsky(2005)는 그 중에서도, 내현적 구이동(covert phrasal movement)과 관련한 Nissenbaum(2000)의 연구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Bošković(2001)의 후속 연구도 국면과 발음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연구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복사와 복사의 흔적, 이들이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발음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음성접합면의 특성을 밝히는 중요한 연구분야로서 지속될 것이다.

내부병합 혹은 이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분야 또 한가지는 기능범주의 구성지도(catography)를 밝히는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문장의 외곽구조와 관련한 연구들이 주목할 만 한데, Cinque(2002), Rizzi(2004), Belletti(2004) 등의 연구는 문장의 좌외곽구조(Left-Edge)를 규명하는 중요한 연구성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외곽구조와 외곽자질(Edge-feature)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Yang(2006)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문장의 외곽구조 외에도 기타의 기능범주의 외곽구조에 대한 연구도 성과있는 결과물이 보고되고 있는데, Borer(2004a, b)는 명사와 관련하여, Svenonius(2008)는 전치사와 관련하여 각각의 외곽구조에 대한 연구들로 명성이 높다.

병합과 투사수준에 관한 연구들도 중요한 분야인데, Fukui(1986)와 Speas(1986)의 연구는 투사의 수준을 문법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병합의 결과물의 실체에 관한 연구로 높은 성과라고 평가한다. 병합의 결과물을 명명하는 문제도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이 분야와 관련하여 Collins(2002)는 무명명 통사론(label-free syntax)을 주장하고 있는데, 문법에서 과연 명명이 제거되어야 하는지는 논란이 분분하다. 전술한대로 Boeckx et al.(2009)는 명명을 UG 이전의 최소한의 기본 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옳

은 결론인가는 개념적인 논의와 경험적 자료의 신빙성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순의 결정과 관련한 연구도 앞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Fox(2002)과 Fox and Nissenbaum(1999) 등으로 대표되는 선형화이론(Linearization Theory)은 어순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성과로서 SM(Sensory-Motor, 감각-운동)접합면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연구들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이들의 선행연구로서 Kayne(1994)의 LCA 연구는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순의 결정이 구조적 비대칭성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중요한 주장이다. 즉, 문장구조와 어순이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으로서 선형화이론의 중요한 연구 촉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한다.

병합과 관련한 연구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가 국면과 관련한 연구이다. 국면이란 전통적으로 순환단위(cycle)의 발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병합으로 궁극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언어의 순환성이고, 이 순환성이 국면의 단위로 연산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인간언어의 본질과 직접 닿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 분야 연구로는 물론 Chomsky(1995)의 국면침투불가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PIC)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가장 중요하며, Chomsky와 약간 다른 입장에서 이동과 국면의 관계를 규명한 Nevins(2004)의 연구도 주목할 만 하다. 국면의 기본 단위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연구하여 DP도 국면일 가능성을 제기한 Svenonius(2003)의 연구, *rP*의 국면성에 의문을 제기한 Legate(2003) 등도 독창적인 논의로 생성문법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Boeckx(2003)의 시도 등도 중요한 연구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den Dikken(2006, 2007)의 연구에 최초로 제안된 국면확대(phase extension)에 대한 제안도 앞으로의 통사론 연구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연구성과이다.

4. 통섭(統攝, Consilience)

21세기 들어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지과학의 연구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진

화론적 관점의 영역에 포함되는 다양한 학문분야들과 언어연구가 공동으로 인지능력의 규명에 참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심리학, 생물학, 신경과학 혹은 신경생리학 분야이다. 신경생리학이란 인간의 신경체계가 모두 두뇌에서 해석되고 통제된다는 것을 규명하는 분야인데 언어가 인간의 두뇌의 작용이라면 당연히 인간의 언어도 신경생리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를 신경언어학이라고 부른다. 신경언어학적 접근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캠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언어능력을 인간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인지능력으로 보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언어능력은 독립적이지 않고 다만 인간의 다른 여러 가지 인지능력의 일부라고 보는 견해이다. 전자는 Hauser et al.(2002) 등의 견해이고 후자는 Jackendoff and Pinker(2005) 등의 견해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인지능력을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운용기제는 순환(recursion)이다. 순환이란 쉬운 용어로 반복을 의미하는데 언어의 측면에서 보면 두 개의 문법 요소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또 다른 하나와 만나 더 큰 단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명사를 형용사가 연속적으로 수식해 나간다는, 문장이 병렬절 혹은 종속절을 가지며 계속된다는가 하는 등의 현상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순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필수불가결한(indispensible) 운용을 병합으로 본다 (Hauser et al. 2002).¹⁹⁾

이와는 달리 Jackendoff and Pinker(2005)는 병합을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19) 이 논의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보고가 최근 인류학자들과 언어학자들간에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Daniel Everett 박사가 아마존의 Piraha어를 관찰하고 UG의 실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부족의 언어는 결정적으로 순환성을 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I saw the dog that was down by the river get bitten by a snake."같은 관계절을 포함하는 복합문을 그 원시부족은 만들 수 없다고 한다. 대신 그들은 'I saw the dog. The dog was at the beach. A snake bit the dog.'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UG를 중심으로 한 생성문법연구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언어의 핵심적인 특징이 순환성이고 병합이란 결국 순환성을 설명하기 위한 최소 운용인데 순환성이 발견되지 않는 인간언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Steven Pinker의 표현을 빌자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a bomb thrown into the party)과 같은 연구가 아닐 수 없다. Everett 박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이어지면서 Nevins, Pesttsky, and Rodrigues(2007) 같은 학자들은 자료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거세게 제기하고 순환성에 기초한 UG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박 논문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verett 2007).

별개의 독립적인 운용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 그들은 인간의 언어가 진화과정의 돌연변이적 산물이라는 Chomsky의 견해에 반대하며, 언어능력의 생성은 다른 생물들의 생물학적 본능들처럼 진화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연선택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문제는 언어능력의 규명이 언어의 연구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오늘날의 언어연구는 단순히 언어학 단독의 분야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 인간에게 언어능력이 생겨났으며, 이것을 왜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심리학, 생물학, 인류학, 고고학, 신경과학, 뇌생리학 등의 복합 학제적 연구에 의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언어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는 학문간의 협동작업이 필수적인 것이다.

현대 인지과학의 동향에 따르면 언어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능력들이 과연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해당 문장을 비문으로 알아내는 능력이 인간의 다른 인지적 능력과 같은 것이라면 과연 인간의 언어능력이 별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고전적인 예로 예를 들어 유명한 오인문장(garden-path sentence)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21) The horse raced past the barn fell.

청자는 위 문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barn*이 끝나는 지점에서 화자들은 문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다가 *fell*을 만나면서 문장을 다시 처리하여 해석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것을 ERP 검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반응을 가지고 언어학적 반응인지, 비언어학적 반응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얻어지는 ERP 상의 결과가 언어 고유의 반응인지, 아니면 “놀람효과(surprise effect)”로 총칭되는 심리 전반의 현상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인지과학이 모든 학문의 철학적 혹은 심리학적 배경이 되어왔고 언어학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오기는 했으나 인지과학으로서의 언어학 연구가 인접분야와 협동하면서 진행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보아야 한다. 다행

이도 최근에 신경언어학적 연구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발맞추어 국내외의 많은 언어학 연구관련 대학과 기관들이 협동과제를 수행해 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앞서서 이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MIT의 Ken Wexler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뇌과학 및 인지과학학과의 성과, Harvard 언어학과의 Maria Polinsky 교수의 최근 연구, UMD의 David Poeppel, Colin Phillips 교수, NYU의 Liina Pyrkänen, Alec Marantz 교수 등은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들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국내의 언어학 관련 연구자들도 이러한 학제간 연구성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는 요즘 우리학문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통섭의 실천이기도 하다.²⁰⁾

IV.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UG의 궁극적 규명을 위한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통사론의 연구가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이를 다시 요약하자면 다음의 표와 같을 것이다.

20) 통섭은 "지식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 학문 이론이다 (위키백과).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과거 고전학의 시절에는 같은 학문의 영역이었으나, 근세 이후 학제간의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다른 영역의 연구대상으로 인식되어 서로 상이한 연구방법론을 택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화생물학적 발전(evo-devo revolution)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학제간의 협동 없이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 하버드대 생물학과 교수인 Wilson의 1998년 저서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을 통해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인지과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간의 뇌의 정체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생물학, 심리학, 신경과학, 의학, 언어학 등의 학제적 협동이 필요하게 되면서 통섭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국내에서는 월슨의 제자인 이화여대의 최재천교수가 이를 <통섭, 지식의 대통합>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통섭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였다.

(22) 생성문법 통사론 연구의 비교

	GB	MP
철학적 관점	플라톤의 문제	다윈의 문제
논리적 관점	언어습득의 논리적 문제	언어진화의 논리적 문제
연구방법론	위로부터의 접근	아래로부터의 접근
UG를 보는 관점	조합적 구성	비조합적 구성
학제적인 관점	자립적 통사론 연구	인접분야와 통섭적 교류

UG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GB와 MP는 같은 공동의 학문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몇 가지 관점과 이에 따른 방법론의 실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철학적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GB의 연구가 언어습득의 논리적 문제인 플라톤의 문제의 규명에 집중했다면, 현재 MP의 연구는 언어진화의 논리적인 문제인 다윈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인간이 매우 빈약한 입력만 가지고도 매우 풍부한 출력을 생성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관점에서 인간의 장구한 진화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도 단시간 내에 완벽한 언어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으로서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것이다. 이를 연구방법론의 입장에서 보면 GB의 연구가 위로부터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MP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UG를 다양한 모듈의 조합적 구성으로 가정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이 위로부터의 접근이라면, UG는 아주 단순한 한 두가지의 기본적인 운용과 이를 관장하는 최소한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의 규명에 접근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에 따르면 UG는 더 이상 조합적인 복합체로 볼 수 없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를 언어연구자들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Chomsky는 강조하고 있다. 즉, SMT를 추구함에 있어서 MP 자체를 SMT로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Chomsky는 1995년 자신의 기념비적인 책인 *The Minimalist Program*에서 자신의 MP 문법모델은 이론(theory)가 아니고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MP가 표방하는 강력

최소주의는 최소주의적 가설(minimalist hypothesis)가 아니라 연구지침(research guide)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Hauser et al. 2002). 따라서 MP가 설정한 가설들이 언어의 경험적 성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적법성의 문제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²¹⁾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통사론 연구의 미래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앞으로의 통사론 연구는 언어습득의 문제로부터 언어진화의 문제로 연구의 철학적 배경이 변화할 것이다. UG는 조합적이라는 관점에서 UG는 매우 단순한 한 두가지의 원리로 구성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변화하여 위로부터의 접근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접근이 강조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접 인지과학 분야와의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것이며 현대 학문이 요구하는 진리 규명에 대한 통섭적 접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1) Chomsky 자신의 이러한 명확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MP 문법모델은 여전히 하나의 이론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프로그램이 아니라 완벽성을 추구하는 가설들로 구성된 하나의 이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ornstein, 2008 가을학기 강의, University of Maryland).

인 용 문 헌

- Baker, Mark. *The atoms of language*. New York: Basic Books, 2001.
- Belletti, Adriana, e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3, Structures and beyond*. Oxford: Oxford UP, 2001.
- Boeckx, Cedric, Nibert Hornstein, and Jairo Nunes. *Control as movement*. Ms., 2009.
- Boeckx, Cedric. *Islands and chains: Resumption as stranding*. Amsterdam: John Benjamins, 2003.
- Borer, Hagit. *Structuring sense. Vol. 1, In name only*. Oxford: Oxford UP, 2004a.
- _____. *Structuring sense. Vol. 2, The normal course of events*. Oxford: Oxford UP, 2004b.
- Bošković, Željko. *On the nature of the syntax-phonology interface*. Amsterdam: Elsevier, 2001.
- Bowers, John. "On reducing control to movement." *Syntax* 11 (2007): 125-43.
- Chomsky, Noam.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LSLT)*. Ms. 1955. Parts of 1956 revision published in New York: Plenum, 1975, and Chicago: U of Chicago P, 1985.
- Chomsky, Noam. "On *wh*-movement." P. W. Culicover, T. Wasow and A. Akmajian, eds. *Formal syntax*. New York: Academic P, 1977. 71-132.
- _____.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The Hague: Mouton, 1981.
- _____.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 1995.
- _____. "Three factors in language design." *Linguistic Inquiry* 36 (2005): 1-22.
- _____. "Approaching from below." Ms., MIT, 2007.
- _____. "On phases."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d. Robert

- Freidin, Carlos Otero, and Maria-Luisa Zubizarreta. Cambridge, Mass.: MIT P, 2008.
- Cinque, Guglielmo, e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1, Functional structure in DP and IP*. Oxford: Oxford UP, 2002.
- Collins, Chris. *Local economy*. Cambridge, Mass.: MIT P, 1997.
- _____. "Eliminating labels." *Derivation and explanation in the Minimalist Program*. Ed. Samuel David Epstein and T. Daniel Seely, Malden, Mass.: Blackwell, 2002. 42-64.
- Den Dikken, Marcel. "Phase extension." Ms., City University of New York, Graduate Center, 2006.
- _____. "Lecture series on locality." Handout given in the 9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9, 2007.
- Epstein, Samuel David. "Un-principled syntax: The derivation of syntactic relations." *Working minimalism*. Ed. Samuel David Epstein and Norbert Hornstein, Cambridge, Mass.: MIT P, 1999. 317-45.
- Everett, Dan. "Cultural constraints in Piraha? A reply to Nevins, Pesetsky, and Rodrigues." Ms., 2007.
- Fox, Danny. "Antecedent-contained deletion and the copy theory of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3 (2002): 63-96.
- _____. and Jon Nissenbaum. "Extraposition and scope: A case for overt QR." *Proceedings of the 18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Ed. Sonya Bird, Andrew Carnie, Jason D. Haugen, and Peter Norquest, Somerville, Mass.: Cascadilla P, 1999. 132-144.
- Frampton, John, and Sam Gutmann. "Cyclic computation, a computationally efficient minimalist syntax." *Syntax* 2 (1999): 1-27.
- Fujii, Toru. "Some theoretical issues in Japanese contro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aryland, 2006.
- Fukui, Naoki. "A theory of category projection and its applications."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1986. Revised

- version published as *Theory of projection in syntax*. Cambridge: Cambridge UP, and Stanford, Calif.: CSLI Publications, 1995.
- Hauser, Marc D., Noam Chomsky, and W. Tecumseh Fitch. "The faculty of language." *Science* 198 (2002): 1569–79.
- Hornstein, Norbert. "Movement and control." *Linguistic Inquiry* 11 (1999): 679–708.
- Hornstein, Norbert. *A theory of syntax: Minimal operations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2009.
- Jackendoff, Ray, and Steven Pinker. "The faculty of language: What's special about it?" *Cognition* 19 (2005): 707–784.
- Kayne, Richard.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1994.
- Landau, Idan. "The scale of finiteness and the calculus of control."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2 (2004): 811–77.
- Legate, Julie Anne. "Some interface properties of the phase." *Linguistic Inquiry* 34 (2003): 506–516.
- Miyagawa, Shigeru. "On the EPP." *Proceedings of the EPP/Phase Workshop*. Ed. by Martha McGinnis and Norvin Richard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Cambridge, Mass.: MIT,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Philosophy, 2004.
- Nevins, Andrew. "Derivations without the Activity Condition." *Proceedings of the EPP/Phase Workshop.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Ed. Martha McGinnis and Norvin Richards. Cambridge, Mass.: MIT,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Philosophy, 2004.
- _____. David Pesetsky, and Celine Rodrigues. "Piraha Exceptionality: A Reassessment. Ms., 2007.
- Nissenbaum, Jon. "Investigations of covert phrase 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2000.
- Poeppl, D. and D. Embick. "Defining the relation between linguistics and

- neuroscience.” *Twenty-first century psycholinguistics: Fourcornerstones*. Ed. A. Cutler.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5. 103–18.
- Polinsky, Maria and Eric Potsdam. “Backward control.” *Linguistic Inquiry* 33 (2002): 245–82.
- Polinsky, Maria, Philip Mohanan, and Nayoung Kwon. “Object control in Korean: How many constructions?” *Language Research* 43 (2007): 1–33.
- Richards, Norvin. *Movement in language*. Oxford: Oxford UP, 2001.
- Rizzi, Luigi, e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2, The structure of CP and IP*. Oxford: Oxford UP, 2004.
- Rodrigues, Celine. “Impoverished morphology and movement out of case domai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aryland, 2004.
- Speas, Margaret. “Adjunctions and projection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1986.
- Svenonius, Peter. “On the edge.” Ms., University of Tromsø, 2003.
- . “Parametric Variation, a Theory of Features, and the Decomposition of P.” Talk given in Colloquium,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2008.
- Terje, Lohndal. “What do you think what parameters are?” Talk given in Syntax Lunch,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2008.
- Yang, Charles. *Knowledge and learning in natural language*. Oxford: Oxford UP, 2002.
- Yang, Dong-Whee. “The phasal movement hypothesis and syntactic freezing.”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6 (2006): 635–64.

Abstract

Prospects of Modern Generative Syntactic Study

Sun-Woong Kim

This paper is purposed to investigate what modern syntax is doing and to prospect which direction it is headed for. As a pursuit of minimalism, generative syntax has been one of the most heated field of syntactic studies at least for the past 60 years and is expected to be so in the coming future. Basic tenets remain intact though, its modeling has been consistently adapted to meet the changing foci of interes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previous models of generative syntax including GB(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and MP(Minimalist Program), and discusses what the 21st century syntax is doing on what philosophical background. In doing so, this paper discusses long-standing philosophical problems like Plato's problem, Orwell's problem, and the so-called Darwin's problem. By questioning how human being has succeeded in evolving such a great language faculty which other creatures lack in a remarkably short period of human evolution, this paper introduces a solution to Darwin's problem in terms of the discussion of Boeckx et al. (2009) that the necessary minimum for the build-up of language faculty is its labeling property. Label operation is claimed to be responsible for explaining the recursion property of human languages. This paper also predicts that syntactic study will be one of the most promising consilient field of modern cognitive science by exploring the third factor phenomena.

Key words: Darwin's problem, minimalism, UG, Merge, Label, consilience
 다윈의 문제, 최소주의, 보편문법, 병합, 명명, 통섭

논문접수일: 2010. 4.14

심사완료일: 2010. 5. 8

게재확정일: 2010. 6.14

이름: 김선웅

소속: 광운대학교 영문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광운길 26 광운대학교 영문과

이메일: swkim@kw.ac.kr